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학교장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한계 극복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학용 노선버스 운행

추진부서 | 파주시 버스정책과 031-940-5782

개선배경



- 모든 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그곳에서 공부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 현행 제도상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행 불가하여 일선 학교의 예산과 행정력 부담 증가하여 통학버스 운행 차질로 통학불편 민원 다수 발생하였음
  -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통학버스 보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일부 학교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한달 15만원 상당의 셔틀버스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운정신도시 1지구('09년 최초입주)와 3지구('27년 이후 준공)의 도시 기반 격차로 인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안으로 자가용자동차, 도보,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운정신도시 소재 청소년(중 ·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목적
- 다각화되고 있는 여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출퇴근 전용 버스, 심야 버스 등과 같이 시대적 흐름에 순응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학원차(모집인원이 부족하면 운행불가) 학교별 통학버스(학교 여건에 따라 운행여부 결정) 대중교통(노선이 없거나 배차간격, 탑승경쟁 등 문제발생) 자가용자동차(부모님 아침운행 부담증가) 도보, 킥보드 등(안전문제, 날씨영향 등 불편증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버스로서 새로운 개념의 학생전용 교통수단

- **지자체 주도의 통학버스, 현행 한정면허 활용 전환점 마련**
  - 기존 한정면허는 관광지, 공항셔틀, 출퇴근, 심야버스 등으로만 활용 가능했으나, 학생전용으로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여 학교와 학교를 잇는 노선 운행
-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 개정**
  - 지원대상, 예산지원 등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체계 편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학생 학부모 정책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파프리카 브랜딩 개발**
  - 쉽게 부르고 쉽게 기억하는 이름으로 홍보 및 정책 지속가능성 향상





추진과정

- 2023. 1. ~ 6. 경기도교육청 통학버스 사업 추진 난항(제도적 한계)
- 2023. 7. **파주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한정면허) 추진 방침**
- 2023. 11. 기존 대중교통체계 편입 위한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협의
- 2023. 1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전체 의원 발의)**
- 2024. 1. 8. 파주시-道교육청, 파주시-㈜카카오 업무협약(MOU) 체결
- 2024. 1. 19. 국토교통부 1차 대면회의(한정면허 활용 불가, 사업무산위기)
- 2024. 2. 13. **국토교통부 2차 대면회의(파프리카 운행가능 결론, 사업추진탄력)**
- 2024. 2. 29.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개정안 통과
- 2024. 3. 4.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 개시 성공**
- 2024. 5. 20. 통학버스 최초 ㈜카카오 초정밀버스 서비스 시행

개선효과

- 오로지 학생만 탈 수 있으며 학교로 직행하는 노선버스로 출근하는 직장인과 함께 타지 않아 쾌적한 통학환경 마련
-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적용하였으며, 환승이 가능하여 학생 교통비 부담을 절감
-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마다 버스정보 안내(버스도착정보)를, 앱으로는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성 증대
-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 및 통학 문제에 당면한 지자체 등 학생 통학 환경 개선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





Interview

파프리카로 바꾸어나가는 우리의 일상

경기도 파주시 버스정책과 여기욱 031-940-5782



학생들은 아침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만차버스에 올라타는 일상이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흔한 일상이거나 또는 앞으로 나의 자녀가 겪게 될 우리 모두의 일상이었습니다.

파주시 버스정책과는 이 일상을 깨트릴 묘수로 한정면허를 찾아내었고, 학생전용이자 통학전용 노선버스를 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작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정면허는 본래 제한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도였고, 많은 이들의 반대와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그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4일 운행 개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가며 지금의 파프리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파프리카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길 바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학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